

고려시대 한국한자음에 대한 일고찰*

-《三國遺事》所載 讚詩의 押韻 分析을 중심으로

權仁瀚**

1. 序論

우리나라의 수많은 漢詩 작품들 중에서 전통적인 作詩法, 특히 押韻上의 基準을 벗어난 破格을 보이는 작품은 없을까? 그러한 작품들이 존재한다면, 한어 음운학자들이 詩韻(또는 曲韻) 資料를 한어음운사 연구의 기초 자료의 하나로 이용하고 있듯이,¹⁾ 문제의 작품들을 분석하면 해당 시기의 한국한자음에 대한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몇 해 전부터 필자의 머리 속을 맴돌던 생각의 하나다.

그런데 최근에 필자는 《三國遺事》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파격적인 押韻을 보인 讚詩 몇 편을 발견할 수 있었다. 《三國遺事》(앞으로 <유사>로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울산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1) 詩韻(또는 曲韻) 資料를 통한 한어음운사 연구에 대해서는 王力(1985)의 논의를 참조. 王力은 한 두 시기를 제외하고는 한어의 시대별 음운체계(특히 韻母體系)에 대한 예시 자료로 漢詩의 押韻 資料를 이용하고 있다.

죽임)에 실려 있는 讚詩들은 一然(1206~1289)이 <유사>의 일부 항목 본문에 등장한 인물들의 업적을 기리는 創作詩이므로 고려시대의 한국한자음 연구에 이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하여 본고를 집필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유사> 所載 讚詩 50편에 대한 押韻 分析을 행하고, 그 결과 파격적인 用韻을 보인 讚詩들에 대하여 漢詩의 作詩法을 벗어나게 된 배경을 구명하는 과정에서 1차적으로 당시 한국한자음의 체계와 관련된 해석을 담고자 한 논의이다.²⁾

<유사>에 실려 있는 鄉歌에 대한 폭넓은 연구들에 비하여 一然의 讚詩에 대한 연구는 초라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필자의 寡聞인지 모르나, 문학 쪽의 인권환(1983), 어학 쪽의 박만규(1989)³⁾의 두 편이 거의 전부가 아닌가 한다. 먼저 인권환(1983)은 고려시대의 불교시를 전반적으로 연구한 저서로서 慧謨, 冲止, 景閑, 普愚, 慧勤 등의 禪詩들과 함께 一然作 讚詩들의 문학적 가치를 논의한 바 있는데, 작품의 내용적 측면에 대한 고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반면, 박만규(1989)는 본고와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서 一然作 讚詩들의 押韻 分析을 행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讚詩들의 押韻 分析을 통하여 用韻上의 逸脫과 당시 한국한자음과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押韻 分析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用韻上의 逸脫에 대하여 중국 상고음과의 관련성으로 이해한 부분에는 다소 과한 부분이 없지 않은 듯하다. 필자가 본고에서 <유사> 讚詩들의 用韻 問題에 대하여 재론하려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 2) 표제에서 내건 고려시대 한국한자음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필요로 한다. 즉, 지명·인명·관명·향명 등의 고유명사 자료, 이두·구결·향찰 등의 차자표기 자료, 佛經 등에 보이는 音釋 자료 등에 대한 고찰을 종합한 이후에야 고려시대 한자음의 체계에 대한 보다 완전한 이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줄고(1997)은 前二者에 대한 부분적인 고찰을 담고 있는데, 본고는 거기에서 다루지 못한 詩韻 資料를 통한 연구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방면의 논의가 필자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초보적인 수준의 押韻 分析이니만큼 본고에는 다소 미숙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의 諒察과 叱正을 빌어 마지 않는다.
- 3) 박만규(1989)는 현재 구하기 어려운 논문의 하나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 논문이 실린 號數의 학회지가 모종의 사유로 폐기 처분된 때문이라고 한다. 다행스럽게도 필자는 이 논문을 경상대학교 중문과에 제직하고 계시는 권호중 교수를 통하여 그 사본이나마 구해 볼 수 있었다. 여기에 특별히 적어 권 교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본고의 논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유사> 所載 讚詩들에 대하여 概觀하고, 3장에서는 각 讚詩들의 押韻 分析과 한국한자음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논의하며, 마지막 4장에서는 본문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정리함으로써 본고의 결론을 이끌어낼 것이다. 아무쪼록 본고가 15세기 이전 한자음의 연구에 이용할 수 있는 자료의 확충에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바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필자의 소박한 바람이다.

2. 讚詩 概觀

먼저 이 장에서는 <유사> 所載 讚詩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들을 서술함으로써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그 내용은 讚詩의 기원, <유사>에서의 讚詩 수록 현황, 讚詩들의 형식과 押韻上의 특징에 대한 소개가 될 것이다.

2.1. 讚詩의 기원

讚詩는 형태적으로 佛典 十二部經의 하나인 “祇夜”(geya, 應頌·重頌·重誦偈)에서 유래된 듯하다.⁴⁾ 즉, “祇夜”(불교계에서는 ‘기야’로 읽는다)는 散文의 끝에 다시 그 뜻을 거듭 말하는 韻文을 말하는 것이니(《한국불교대사전》, ‘祇夜’ 항목 참조), 梵語 原典에서부터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던 佛典의 형식이 중국에 들어와 漢譯되면서 漢詩的 韻文形態로 나아가게 되었고, 이것이 개인적 창작에로 轉化되고 여기에 개인적 주관성이 가미되어 佛敎詩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인권환 1983:117).

<유사>의 讚詩는 대부분⁵⁾ 항목 末尾에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一然의

4) 인권환(1983 : 117~8)에서는 “祇夜” 또는 “伽陀”에서 유래된다고 하였으나, “伽陀”(Gāthā, 句頌·孤起頌·不重頌)는 ① 頌文과 散文을 막론하고 經文의 글자가 32자에 이른 것(首盧伽陀, Sloka)이나, ② 반드시 4句로써 文義를 갖춘 것, 三言·八言 등을 불문하고 4句를 갖춘 것을 結句伽陀라 하니(이상 《한국불교대사전》, 寶蓮閣, 1982에서 인용함)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讚詩의 형식과는 차이 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주관적인 감흥을 보태어 그를 찬양 또는 찬송하는 漢詩에 해당되므로 위에서 말한 “祗夜”와 불교시의 중간적인 위치에 서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⁶⁾

2.2. 讚詩의 수록 현황

<유사>에는 45項目에 걸쳐 讚詩 50편이 수록되어 있다. 그 현황을 <유사>의 項目名과 篇數, 본고에서의 예시 번호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⁷⁾

卷次	篇次	項目名	(편수·예시 번호)
卷第一,	紀異第二	天賜玉帶	(1:6)
卷第三,	典法第三	順道肇麗	(1:17)
" "	" "	難陀闢濟	(1:18)
" "	" "	阿道基羅	(1:9)
" "	" "	原宗典法 狀髑滅身	(2:42, 47)
" "	" "	法王禁殺	(1:13)
" "	" "	寶藏奉老 普德移庵	(1:1)
" 塔像第四	" "	迦葉佛宴坐石	(1:19)
" "	" "	遼東城育王塔	(1:20)
" "	" "	金官城婆娑石塔	(1:43)
" "	" "	皇龍寺丈六	(1:36)
" "	" "	皇龍寺九層塔	(1:44)
" "	" "	四佛山 堀佛山 万佛山	(1:10)
" "	" "	前後所將舍利	(1:21)
" "	" "	彌勒仙花 木尸郎 眞慈師	(1:2)

- 5) 여기서 대부분이라 함은 일부 記事의 중간에 위치한 讚詩도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迦葉佛宴坐石讚”이 그것이다.
- 6)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각종 碑文의 末尾에 해당 인물을 기리는 “銘”이나, 《訓民正音解例》에서 본문의 내용을 요약한 韻文도 讚詩와 형태상 비슷한 점이 있다. 따라서 15세기 이전의 각종 비문에 등장하는 “銘”과 같은 자료에 대해서도 본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고찰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7) 이 표는 인권환(1983:118~9)에 제시된 것을 기초로 한 것이다. 다만, 인 교수의 표에는 한 편이 빠져 있으므로(“迦葉佛宴坐石讚”) 이를 바로잡은 것임을 밝혀 둔다.

"	"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	(3:①, ②, ④)
"	"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	(1:⑭)
"	"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	(2:⑳, ㉑) ⁸⁾
卷第四		義解第五 圓光西學	(1:⑮)
"	"	良志使錫	(1:⑳)
"	"	歸竺諸師	(1:㉑)
"	"	二惠同塵	(1:㉒)
"	"	慈藏定律	(1:㉓)
"	"	元曉不羈	(1:③)
"	"	義湘傳教	(1:⑩)
"	"	蛇福不言	(1:⑰)
"	"	眞表傳簡	(1:④)
"	"	心地繼祖	(1:⑤)
"	"	賢瑜珈 海華嚴	(2:㉘, ㉙)
"	神呪第六	密本摧邪	(1:⑧)
"	"	惠通降龍	(1:⑳)
卷第五		感通第七 仙桃聖母隨喜佛事	(1:㉚)
"	"	郁面婢念佛西昇	(1:④)
"	"	憬興遇聖	(1:⑳)
"	"	眞身受供	(1:⑦)
"	"	月明師兜率歌	(1:⑳)
"	"	善律還生	(1:㉑)
"	"	金現感虎	(1:㉒)
"	避隱第八	朗智乘雲 普賢樹	(1:㉓)
"	"	緣會逃名 文殊站	(1:④)
"	"	惠現求靜	(1:④)
"	"	信忠掛冠	(1:④)
"	"	包山二聖	(1:㉔)
"	"	永才遇賊	(1:④)
"	孝善第九	大城孝二世父母 神文(王)代	(1:㉕)

8) 이 讚詩는 山攝韻과 宕攝韻이 換韻되는 형식의 七言絶句 두 首(이른바 “一題二首”)로 보아야 한다. 원문에도 前篇과 後篇 사이에 2자의 공백이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로 도움 말씀을 주신 성범중 교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3. 讚詩의 형식과 押韻上의 특징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유사>에 실려 있는 讚詩들은 모두 七言絶句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형식상 다소 특이한 것은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讚”이나 앞서 말한 대로 이는 소위 “一題二首”의 七言絶句 두 편으로 보아야 하므로 <유사>의 讚詩들은 형식상 七言絶句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

七言絶句는 (1), 2, 4句에 운을 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첫 구(首句)를 괄호로 표시한 것은 다음과 같은 正力의 증언에 의거한 것이다.

“七絶의 首句는 또한 七律의 首句와 같이 운을 다는 것으로 正例, 운을 달지 않는 것으로 變例를 삼았다. 그러나 七絶의 變例는 五絶의 그것보다 비교적 많다.”
(홍우홍편역(1983:32))

바로 이 首句의 用韻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유사> 讚詩의 押韻 分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가 된다. 박만규(1989)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기계적으로 讚詩의 1, 2, 4句에 운이 달린 것으로 간주하여 논의한 결과, ‘陽入互押’, ‘平去通押’과 같은 다소 의외의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으나, 문제의 通押이 나타나는 자리는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首句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元曉不羈讚

角乘初開三昧翻	(軸：通合三人屋澄)
舞壺終掛萬家風	(風：通合三平東非)
月明瑤石春眠去	
門掩芬皇顧影空	(空：通合三平東溪)

眞身受供讚

燃香擇佛看新圖	(繪：蟹合一去泰匣)
辦供齋僧喚舊知	(知：止開三平支知)
從此琵琶席上月	
時時雲掩到潭漣	(漣：止開三平脂澄)

의 두 讚詩를 대상으로 박만규 교수는 “元曉不羈讚”에서의 首句 屋韻字 <軸>도 압운자로 보아 陽入互押을, “眞身受供讚”에서는 首句의 泰韻字 <繪>도 押韻字로 보아 蟹攝과 止攝을 넘나드는 平去通押을 인정함으로써 마침내 一然 당시까지도 우리 한자음에 중국 上古音의 영향이 짙게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通押은 先秦 시기의 《詩經》 등에서나 볼 수 있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⁹⁾ 一然이 활약하던 시기는 이미 晚唐의 詩風을 넘어 宋詩學을 수용·발전하던 시기이고(민병수 1996 등), 一然도 이러한 한시의 흐름에 예외적인 존재로 보아야 할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문제의 通押現象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이다.

오히려 <유사> 讚詩들에는 중국 近體詩의 특징들이 발견되고 있다. 그것은 首句에서의 소위 “儼韻”現象이다. 즉, 전통적으로 한시의 首句에는 韻을 달지 않았으나, 中唐·晚唐 이후 점차 首句에 隣接한 韻으로 운을 다는 경향이 늘어나 宋代에는 의식적이기까지 하였으니 이를 儼韻이라고 한다(홍우흠편역 1983:43~4). 이러한 儼韻의 예는 <유사>의 讚詩에서 다수 볼 수 있다.

寶藏奉老 普德移庵讚

釋氏汪洋海不窮	(窮：通合三平東羣/공平/궁)
百川儒老盡朝宗	(宗：通合一平冬精/중平/중)
麗王可笑封沮洳	
不省滄溟徙臥龍	(龍：通合三平鍾來/릉平/룽)

위의 讚詩 首句에서의 東韻字 「窮」을 압운자로 보게 되면, 원칙적으로 “東獨用, 冬與鍾通”의 用韻 基準¹⁰⁾을 어기는 것이 되나, 東韻은 冬·鍾韻과 함께 通攝에 속하는 隣接韻이므로 ‘東韻으로써 冬·鍾韻을 도운’(以東儼冬) 儼韻의 예로 보아 손색이 없게 된다. 실제로 中唐·晚唐 이후의 한시들에서는 이러한

9) 《詩經》 詩의 用韻現象에 대해서는 이돈주(1995:215~9, 231~7)의 논의를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에는 陰陽 對轉, 陽入 對轉, 陰入 對轉에 대하여 예시와 함께 상세한 설명이 있다.

10) 詩韻의 用韻 基準은 《古今韻會學要》의 凡例 뒤에 실려 있는 ‘禮部韻略七音三十六母通攷’와 《廣韻》, 《集韻》에서의 規定을 종합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다.

儼韻의 예가 많다(구체적인 것은 홍우흠편역 1983:44~51의 논의를 참조). 따라서 필자로서는 박만규(1989)에서 제기한 通押 問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취할 수밖에 없다.

결국 <유사> 讚詩들의 押韻上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二·四句에는 반드시 운을 달되,

둘째, 首句에는 운을 달지 않거나, 隣接韻으로 운을 단 儼韻現象이 나타나는 近體詩的 특징을 지니고 있다.

3. 押韻 分析의 실제

이제 <유사>의 讚詩 50편에 대한 押韻 分析을 행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중고음 攝別로 讚詩들을 분류·제시한 다음, 詩韻의 用韻 基準에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이를 벗어나는 예들에서의 用韻現象이 당시 한자음의 연구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구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3.1. 通攝韻 讚詩

3.1.1. 자료

① 寶藏奉老 普德移庵讚 <권3(흥법3):12a=225>¹¹⁾

釋氏汪洋海不窮 (窮: 通合三平東羣/羣平/羣)¹²⁾

百川儒老盡朝宗 (宗: 通合一平冬精/精平/宗)

11) 卷次(篇次) 뒤에 제시한 숫자는 <유사>(中宗 壬申刊本) 原張次/민족문화추진회 교감본 張次이다. 즉, <권3(興法3):12a=225>는 <유사> 卷第 三 興法第 三 十二張 前面에 실려 있는데, 교감본의 장차로는 225페이지라는 뜻이다.

12) 여기에 보인 것처럼 押韻字가 포함된 詩句 오른쪽에는 押韻字(儼韻字 포함)의 '中古音 音位/東國正韻音/전승한자음'을 제시하여 논의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中古音 音位의 제시 방법에 대해서는 졸고(1996:149) 각주 6)의 설명을 참조. 다만, 用韻 分析에서는 押韻字가 어느 운에 속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정보이므로 韻目字를 친하게 표시하였다.

- 麗王可笑封沮洳
不省滄溟徙臥龍 (龍：通合三平鍾來/몽平/몽)
- ②彌勒仙花 未尸郎 眞慈師讚<권3(답상4):34b=270>
尋芳一步一瞻風 (風：通合三平東非/봉平/풍)
到處栽培一樣功 (功：通合一平東見/공平/공)
幕地春歸無覓處
誰知頃刻上林紅 (紅：通合一平東匣/형平/홍)
- ③元曉不羈讚<권4(의해5):18b=350>
角乘初開三昧軸
舞壺終掛萬家風 (風：通合三平東非/봉平/풍)
月明瑤石春眠去
門掩芬皇顧影空 (空：通合三平東溪/공평/공)
- ④眞表傳簡讚<권4(의해5):24a=361>
現身澆季激慵嬰 (嬰：通合一平東來/몽平/몽)
靈岳仙溪感應通 (通：通合一平東透/통平/통)
莫謂翹勲傳搭儂
作橋東海化魚龍 (龍：通合三平鍾來/몽平/몽)
- ⑤心地繼祖讚<권4(의해5):29b~30a=372~3>
生長金闈早脫籠 (籠：通合一平東來/몽平/몽)
儉勲聰惠自天鍾 (鍾：通合三平鍾章/종平/종)
滿庭積雪儉神簡
來放桐華最上峯 (峯：通合三平鍾敷/몽平/봉)

3.1.2. 분석과 논의

通攝은 東·冬·鍾 三韻(평성자 기준, 이하 같음)을 포함하고 있는데, 詩韻의 用韻 基準은 “東獨用, 冬與鍾通”이다. 이에 따른다면, 위의 讚詩들 중에서 ②, ③만이 위의 기준에 충실한 예가 되고, 나머지 ①, ④, ⑤는 여기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그런데 ①, ⑤의 경우는 소위 儼韻例로 볼 수 있다. 즉, 위의 ①, ⑤의 讚詩에서 首句가 東韻字임에 비하여 2, 4句는 冬·鍾韻字이므로 ‘以東儼冬’의 예로 볼 수 있다.¹³⁾ 이렇게 되면 ①, ②, ③, ⑤는 詩韻의 用韻 基準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13) 중국 한시에서의 ‘以東儼冬’의 예는 홍우흠편역(1983:44)를 참조할 것.

그러나 ④의 경우는 이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首句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2, 4구는 東韻字와 鍾韻字 사이의 通押을 보이고 있으므로 “東獨用”의 基準을 벗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예는 晚唐 이후에는 중국에서도 예를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¹⁴⁾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있다.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순수히 어학적 관점에서 한어음운사적 변화를 원용하는 방안이다. 즉, 《中原音韻》으로 대표되는 근대한어에 가까워질수록 東·冬·鍾韻의 韻基가 曾攝의 글자들과 함께 /-aŋ/으로 통일되는데, 위의 通押現象을 이러한 근대한음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宋詞나 元曲에서나 볼 수 있을뿐더러 전통적인 漢詩의 用韻 基準은 오랜 기간 동안 지켜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는 중국과 한국의 한자음의 차이에 기인하는 현상으로 보는 방안이다. 즉, 詩韻의 用韻 基準이 된 중고음을 기준으로 할 때 東韻은 /-uŋ/, 冬·鍾韻은 /-oŋ/의 韻基를 가지나, 15, 6세기 한국한자음에서는 東·冬·鍾韻字를 제외한 東·冬·鍾韻字 모두 /-oŋ, -joŋ/(편의상 로마자로 轉字한다)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참고 1997:315 참조) 한국한자음의 간섭이 있었다면 詩韻의 用韻 基準에 충실한다 하더라도 문제의 東鍾通押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종의 가능성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없는 바 아니겠으나,¹⁵⁾ 여기에서는 우선 둘째의 가능성을 취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면 ④의 通押現象을, 通攝의 경우 一然 당시의 한국한자음과 15, 6세기 전승한자음의 체계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었음을 알려 주는 자료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14) 필자로서는 중국 한시에 이러한 예가 있다. 없음을 단정적으로 말할 처지는 못된다. 여기에서는 홍우홍편역(1983:51)에서 “近體詩는 通韻을 못한다”는 증언에 의지한 판단임을 밝혀 둔다.

15) 周長楫(1993:45)의 설명을 참조하건대, 初唐·中唐期の 한시들(주로 白居易, 元稹 등의 작품)에는 “東·(冬)·鍾同用” 현상이 있었다고 하므로 ④의 東鍾通押에 대하여 이들의 영향도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러나 앞서 말한 대로 一然의 시대는 이미 宋詩學의 詩風이 수용되던 시기라는 점에서 이 설명에도 전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3.2. 止攝韻 讀詩

3.2.1. 자료

⑥天賜玉帶讚<권1(기이2):25b=80>

雲外天頒玉帶圍 (圍：止合三平微雲/영平/위)

辟雍龍袞雅相宜 (宜：止開三平支疑/영平/의)

吾君自此身彌重

准擬明朝鐵作堦 (堦：止開三平脂澄/명平/디)

⑦眞身受供讚<권5(감동7):11b=398>

燃香擇佛看新繪

辦供齋僧喚舊知 (知：止開三平支知/당平/디)

從此琵琶崑上月

時時雲掩到潭遲 (遲：止開三平脂澄/명平/디)

3.2.2. 분석과 논의

止攝은 支·脂·之·微 四韻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用韻 基準은 “支與脂之通, 微獨用”이다. 따라서 위의 讚詩들 중에서 ⑦은 위의 기준에 충실한 예가 되고, ⑥은 이에 어긋나는 것이 된다. 그런데 ⑥의 경우도 首句의 微韻字는 ‘以微儼支’의 儼韻例로 볼 수 있다.¹⁶⁾ 이렇게 되면 ⑥, ⑦ 모두 詩韻의 用韻 基準을 벗어나지 않는 예로 볼 수 있다. 이러한 用韻 樣相을 보이는 讚詩들은 단지 중국에서의 用韻 基準에 충실한 것일 뿐이므로 당시 한국한자음의 체계와 관련된 어떠한 실마리도 제공하지 못한다. 앞으로 한국한자음과 관련된 논의는 詩韻 用韻上의 기준을 逸脫한 예들에 대해서만 행하기로 한다.

16) 중국 한시에서의 ‘以微儼支’의 예는 홍우흠편역(1983:45)를 참조할 것.

3.3. 遇攝韻 讀詩

3.3.1. 자료

⑧ 密本推邪韻 < 권5(신주6):2a~b=379~80 >

紅紫紛紛幾亂朱	(朱：遇合三平虞章/중平/주)
堪嗟魚日詛愚夫	(夫：遇合三平虞非/봉~뽕平/부)
不因居士輕彈指	
多小巾箱襲硯砮	(硯：遇合三平虞非/봉~뽕平/未見) ¹⁷⁾

3.3.2. 분석과 논의

遇攝은 魚·虞·模 三韻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用韻 基準은 “魚獨用, 虞與模通”이다. 위의 讚詩 ⑧의 押韻字는 모두 虞韻字이므로 이 기준에 충실한 예가 된다.

3.4. 蟹攝韻 讀詩

3.4.1. 자료

⑨ 阿道基羅韻 < 권3(홍법3):5b=212 >

雪擁金橋凍不開	(開：蟹開一平哈溪/캥平/기)
雞林春色未前廻	(廻：蟹合一平灰匣/뽕平/회)
可恰青帝多才思	
先著毛郎宅裏梅	(梅：蟹合一平灰明/땡平/미)

⑩ 四佛山 壩佛山 万佛山韻 < 권3(답상4):21b=244 >

天粧滿月四方裁	(裁：蟹開一平哈精/정平/지)
地湧明臺一夜開	(開：蟹開一平哈溪/캥平/기)
妙手更煩彫萬佛	
眞風要使遍三才	(才：蟹開一平哈從/정平/지)

17) 「硯」는 李珍華·周長楫編(1993)에 실려 있지 않은 글자이나, 「玦」와 통한다. 여기서는 <廣韻>에서의 「玦：甫無切」을 기준으로 그 音位를 제시한 것임을 밝혀 둔다.

⑪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聖娘)¹⁸⁾讚<권3(담상4):38a=277>

十里松陰一徑迷 (迷: 蟹開四平齊明/땡ㅍ/미)
 訪僧來試夜猨提 (提: 蟹開四平齊定/땡ㅍ/데)
 三槽浴罷天將曉
 生下雙兒擲向西 (西: 蟹開四平齊心/생ㅍ/서)

⑫慈藏定律讚<권4(의해5):16a=345>

曾向清涼夢破廻 (廻: 蟹合一平灰匣/땡ㅍ/회)
 七篇三聚一時開 (開: 蟹開一平哈溪/캥ㅍ/기)
 欲令縑素衣慚愧
 東國衣冠上國裁 (裁: 蟹開一平哈精/징ㅍ/지)

3.4.2. 분석과 논의

遇攝은 齊·佳·皆·灰·哈 五韻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用韻 基準은 “齊獨用, 佳與皆通, 灰與哈通”이다. 위의 讚詩들 중에서 ⑪은 “齊獨用”의 기준에, ⑨, ⑩, ⑫는 “灰與哈通”의 기준에 충실한 것이다. 따라서 위의 讚詩들은 모두 위의 基準에 충실한 예가 된다.

3.5. 臻攝韻 讚詩

3.5.1. 자료

⑬法王禁殺讚<권3(홍법3):9b=220>

詔寬狘狘千丘惠
 澤洽豚魚四海仁 (仁: 臻開三平眞日/인ㅍ/인~인)
 莫溥聖君輕下世
 上方兜率正芳春 (春: 臻合三平諄昌/춘ㅍ/춘)

⑭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讚<권3(담상4):38b=257>

竹馬葱笙戲陌塵 (塵: 臻開三平眞澄/땡ㅍ/딘)
 一朝雙碧失瞳人 (人: 臻開三平眞日/인ㅍ/인~인)

18)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怛怛朴朴’에는 세 편의 讚詩가 나타난다. 각각 北庵, 南庵, 聖娘에 대한 것인데, 여기에 든 것은 聖娘에 대한 것이므로 괄호 속에 이를 명기한 것이다. 앞으로도 이와 같다.

- 不因大士廻慈眼
 虛度楊花幾社春 (春：臻合三平諄昌/춘ㅈ/춘)
- ⑮ 圖光西學讀 <권4(의해5):6b=326>
 航海初穿漢地雲 (雲：臻合三平文雲/운ㅈ/운)
 幾人來往挹清芬 (芬：臻合三平文敷/푼ㅈ/분)
 昔年蹤迹青山在
 金谷嘉西事可聞 (聞：臻合三平文微/문ㅈ/문)
- ⑯ 義湘傳教讀 <권4(의해5):20b=354>
 披榛跨海冒烟塵 (塵：臻開三平眞澄/민ㅈ/딘)
 至相門開接瑞珎 (珎：臻開三平眞知/딘ㅈ/딘)
 采采雜花我(→栽)故國
 終南太伯一般春 (春：臻合三平諄昌/춘ㅈ/춘)

3.5.2. 분석과 논의

臻攝은 眞·諄·文·欣·(魂·痕) 六韻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用韻 基準은 “眞與諄通, 文與欣通”이다. 臻攝의 六韻 중에서 괄호로 표시한 魂·痕韻은 山攝의 元韻과 通押하므로 여기에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의 讚詩들 중에서 ⑬, ⑭, ⑯은 “眞與諄通”의 기준에, ⑮는 “文與欣通”의 기준에 충실한 것이 된다. 따라서 위의 讚詩들은 모두 위의 基準에 충실한 예가 된다.

3.6. 山攝韻 讚詩

3.6.1. 자료

- ⑰ 順道肇麗讀 <권3(홍법3):1b=204>
 鴨渚春深渚草鮮 (鮮：山開三平仙心/선ㅈ/선)
 白沙鷗鷺等閑眠 (眠：山開四平先明/면ㅈ/면)
 忽驚柔櫓一聲遠
 何處漁舟客到烟 (烟：山開四平先影/연ㅈ/연)
- ⑱ 難陀闍濟讀 <권3(홍법3):1b=204>
 人造從來草味間 (間：山開二平山見/간ㅈ/간)
 大都爲伎也應難 (難：山開一平寒泥/난ㅈ/난)

翁翁自解呈歌舞

引得旁人借眼看 (看：山開一平寒溪/칸ㅈ/간)

⑲ 迦葉佛宴坐石讚 <권3(답상4):12b=226>

惠日沈輝不記年 (年：山開四平先泥/년ㅈ/년)

唯餘宴坐石依然 (然：山開三平仙日/연ㅈ/연~연)

桑田幾度成滄海

可惜巍然尚未遷 (遷：山開三平仙清/천ㅈ/천)

⑳ 遼東城育王塔讚 <권3(답상4):14b=230>

育王寶塔遍塵竇 (竇：山合二平山匣/뽀ㅈ/환)

雨濕雲味蘚纈斑 (斑：山合二平山幫/반ㅈ/반)

想像當年行路眼

幾人指點祭神壇 (壇：山開三平元奉/원ㅈ/번)¹⁹⁾

㉑ 前後所將舍利讚 <권3(답상4):31b=264>

華月夷風尙隔烟 (烟：山開四平先影/연ㅈ/연)

鹿園鶴樹二千年 (年：山開四平先泥/년ㅈ/년)

流傳海外眞堪賀

東震西乾共一天 (天：山開四平先透/뵐ㅈ/뵐)

㉒ 南白月二聖 努盼夫得 恒恒朴林(南庵)讚 <권3(답상4):38a=277>

谷暗何歸已暝煙 (煙：山開四平先影/연ㅈ/연)

南窓有草且流連 (連：山開三平仙來/련ㅈ/련)

夜闌百八深深轉

只恐成喧惱客眠 (眠：山開四平先明/뵐ㅈ/뵐)

㉓ 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讚(前篇) <권3(답상4):42b=286>

快適須臾意已閑 (閑：山開二平山匣/뽀ㅈ/한)

暗從愁裏老翁(→蒼)顏 (顏：山開二平刪疑/안ㅈ/안)

不須更待黃粱熟

方悟勞生一夢間 (間：山開二平山見/간ㅈ/간)

㉔ 良志使錫讚 <권4(의해5):9b~10a=332~3>

齋罷堂前錫杖閑 (閑：山開二平山匣/뽀ㅈ/한)

靜裝爐鴨白焚檀 (檀：山開一平寒定/땐ㅈ/단)

殘經讀了無餘事

19) 「壇」도 李珍華·周長楫編(1993)에 실려 있지 않은 글자이다. 여기서는 《廣韻》에서 의 「壇：附袁切」을 기준으로 그 음位를 제시한 것임을 밝혀둔다.

- 聊望圓容合掌看 (看：山開一平寒溪/칸ㅏ/간)
- ㉕歸竺諸師讚<권4(의해5):10b=334>
- 天竺天遙萬疊山 (山：山開二平山生/산ㅏ/산)
- 可憐遊上力登攀 (攀：山開二平刪滂/판ㅏ/반)
- 幾回月送孤帆去
- 未見雲隨一杖還 (還：山合二平刪匣/환ㅏ/환)
- ㉖二惠同塵讚<권4(의해5):13a=339>
- 草原縱獵床頭臥
- 酒肆狂歌井底眠 (眠：山開四平先明/면ㅏ/면)
- 隻履浮空何處去
- 一雙珠重火中蓮 (蓮：山開四平先來/련ㅏ/련)
- ㉗蛇福不言讚<권4(의해5):21b=356>
- 淵默龍眠豈等閑 (閑：山開二平山匣/환ㅏ/한)
- 臨行一曲沒多般 (般：山合一平桓並/반ㅏ/반)
- 苦兮生死元非苦
- 華藏浮休世界寬 (寬：山合一平桓溪/관ㅏ/관)
- ㉘賢瑜珈 海華嚴讚(1)<권4(의해5):30b=374>
- 遶佛南山像逐旋 (旋：山合三平仙邪/현ㅏ/선)
- 青丘佛日再中懸 (懸：山合四平先匣/환ㅏ/현)
- 解教宮井清波湧
- 誰識金爐一柱烟 (烟：山開四平先影/현ㅏ/연)
- ㉙賢瑜珈 海華嚴讚(2)<권4(의해5):31a=3754>
- 法海波瀾法界寬 (寬：山合一平桓溪/관ㅏ/관)
- 四海盈縮未爲難 (難：山開一平寒泥/난ㅏ/난)
- 莫言百億須彌大
- 都在吾師一指端 (端：山合一平桓端/단ㅏ/단)
- ㉚善律還生讚<권5(감봉7):14a=403>
- 堪羨吾師仗勝緣 (緣：山合三平仙以/원ㅏ/연)
- 魂遊却返舊林泉 (泉：山合三平仙從/원ㅏ/전)
- 爺孃若問兒安否
- 爲我催還一畝田 (田：山開四平先定/면ㅏ/면)
- ㉛朗智乘雲 普賢樹讚<권5(피은8):20a=415>
- 想料嵩藏百歲間 (間：山開二平山見/간ㅏ/간)
- 高名曾未落人竇 (竇：山合二平山匣/환ㅏ/환)

- 不禁山鳥閑饒舌
 雲馭無端洩往還 (還 : 山合二平刪匣/환ㅍ/환)
 ㉒包山二聖讚 <권5(괴은8):23b=422>
 相過躡月弄雲泉 (泉 : 山合三平仙從/편ㅍ/천)
 二老風流幾百年 (年 : 山開四平先泥/년ㅍ/년)
 滿壑烟霞餘古木
 依(?偃)昂寒影尙如迎 (迎 : 梗開三平庚疑/영ㅍ/영)

3.6.2. 분석과 논의

山攝은 元·寒·桓·刪·山·先·仙 七韻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用韻 基準은 “元與魂痕通, 寒與桓通, 刪與山通, 先與仙通”이다. 위의 讚詩들을 이러한 基準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元與魂痕通 : 無例
- 寒與桓通 : ㉒
- 刪與山通 : ㉓, ㉔, ㉑
- 以山儗寒 : ㉒, ㉔, ㉗²⁰⁾
- 先與仙通 : ㉑, ㉒, ㉑, ㉒, ㉔, ㉔, ㉑

따라서 위의 讚詩들은 모두 위에 제시한 用韻 基準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㉑, ㉒의 경우는 위의 讚詩들과는 사뭇 다른 양상의 用韻을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먼저 讚詩 ㉑의 경우는 2, 4句에서 山元通押이 나타남으로써 “元與魂痕通, 刪與山通”의 기준을 벗어나고 있다. 중국의 한시에서는 이러한 通押을 보인 예를 찾을 수 없다. 이러한 通押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는 4句의 押韻字 ‘壑’의 한국한자음과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 듯하다. 즉, 元韻 合口字의 한국한자음은 唇音字일 경우 /-an/(煩, 伐 등)과 /-an/(晚, 反, 襪, 發)으로 갈리는데, 그 분화 조건이 분명하지 않다. 非唇音字가 /-wan/(券, 願, 喧, 蹶, 月 등)으로

20) 중국 한시에서의 以山儗寒의 예는 홍우흠편역(1983:48)을 참조할 것.

나타나는 점에 근거하여 졸고(1997:320)에서는 /-an/으로 나타나는 예들을古音의 반영이 아닌가 추측한 바 있다. 문제의 「墮」字도 唇音 合口字이므로 일단 '반'의 음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東國正韻》을 위시한 한국한자음 자료에서는 이 글자의 음이 한결같이 '번'으로 나타남이 문제이나, 이 문제도 해결의 길은 있을 듯하다. 그것은 '番'을 聲符로 가지는 글자들의 한국한자음을 조사해 보면, '번'(番, 幡, 幡, 蕃 등)과 '반'(飜, 蟠, 癩 등)의 둘로 나타나기 때문에 一然 당시 또는 그 이전에 이 글자가 후자의 글자들에 이끌려(또는 혼동하여) '반'의 俗音を 가짐으로써 위에서와 같은 通押이 가능했으리라 보는 것이다.²¹⁾ 이것이 사실이라면 ㉑의 山元通押은 고려시대에까지 전승한자음보다 많은 俗音이 자리잡고 있었음을 알려 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讚詩 ㉒의 경우는 4句의 押韻字 「迎」이 梗攝의 庚韻字이므로 중국 근체시에서 전혀 볼 수 없는, 山攝과 梗攝을 넘나드는 先庚通押을 보이고 있음이 문제가 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는 박만규(1989:13~4)에서 설명된 대로 眞耕兩部가 종종 通押되던²²⁾ 上古音的 用

21)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다른 자료는 동류의 글자인 「潘」이 山韻과 元韻 양쪽에 속하기 때문에 한국한자음으로 '반, 번'의 두 음을 가진다는 것이다(남광우 편저 1995:222의 「潘」 항목 참조). 이 글자는 '番'의 聲符를 가지는 여느 글자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그만큼 「墮」의 음가 판단을 흐리게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2) 상고음의 眞部는 중고음의 臻·眞·諄·先韻을, 耕部는 耕·庚·耕·青韻을 포함하는 韻部이다. 두 운부의 通押에 대하여 王力(1958:96)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在先臻時代, 眞耕兩部往往合韻。……我們認爲 en 和 eq 既然元音相同, 自然可以合韻。直到漢代, 合韻的情形仍然存在。後來韻書出來了, 詩律漸漸嚴起來了, 才不再合韻了。”

(先秦 시기에 있어서 眞部와 耕部는 종종 합운되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en과 eq의 元音이 같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어울려 쓸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 漢代에 이르러서도 이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후 韻書가 나타나 詩律의 틀이 점점 굳어져 가면서부터는 다시 合韻되는 일은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현재 Hashimoto(1970)에서 설정한 중고음의 /-j/ 운미의 존재를 상고음 단계에까지 소급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위에서 王力은 상고음의 眞耕兩部의 합운을 韻基 構造上的 相似性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것을 /-j/ 운미의 존

韻의 흔적으로 보는 방안이다. 둘째는 졸고(1997:305~6)에서 설명된 대로 15세기 이전의 우리의 고유명사 자료들에서 梗·曾攝의 글자들과 山(先韻字만 해당)·臻攝의 글자들이 동음관계를 형성하던 현상²³⁾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방안이다. 이 둘 중의 어느 방안이 더 합리적인 것인지를 지금 당장 결정하기는 어려우나, 필자로서는 이 讚詩에 대해서만 上古音的 用韻의 흔적으로 보는 예외를 인정하기보다는 다른 경우에 평행되게 당시 한국한자음의 양상과 관련된 해석인 후자의 견해를 취하고 싶다. 즉, 졸고(1997)에서 중고음 梗·曾攝의 韻尾를 /-ŋ/으로 잡는 논의와 평행되게 적어도 신라시대에는 이들의 한국한자음의 중성이 山(先韻)·臻攝의 글자들과 동일한 음이었을 것으로 추론한 바 있는데, 讚詩 ㉔가 보여주는 先庚通押은 그러한 한자음의 양상이 一然의 시대에까지 이어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아닐까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한자음의 간섭에 의하여 마침내 위와 같은 특이한 通押現象이 나타날 수 있었으리라 보는 것이다.

재로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어음운사적으로도 상고음에 없던 특징이 중고음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근대음에 와서 사라진 것으로 보기보다는 상고음에 존재하던 특징이 중고음을 거쳐 근대음으로 오면서 서서히 사라진 것으로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 졸고(1997)에서 梗·曾攝字와 山(先韻)·臻攝字 사이의 동음관계 형성을 중고음적 층위로만 본 것을 상고음 또는 중고음적 층위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대륙 쪽과 일본 쪽의 한어음운학자들 사이의 견해차가 크므로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앞으로의 구명 과제로 남긴다.

23) 해당되는 예들을 다시 간추려 보이면 다음과 같다.

a. 「眞」=「貞」

眞峴縣[一云 貞峴] <사기 권37·지리4> ㉔L진(眞), L명(貞)

b. 「全」=「誠」

金志全重阿浪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720)>

重阿浪全(→金)志誠 <유사 권3·南月山> ㉔L전(全), L성(誠)

c. 「舜」=「勝」

外孫 安舜[羅記作 勝] <사기 권22·寶臧E> ㉔Lᄒ舜(舜), LᄒR승(勝)

d. 「賓」=「水」

賓之[又 賓子 又 水之] <유사 권1·新羅始祖赫居世E> ㉔L빈ᄒ빙(賓), L빙(水)

3.7. 假·果攝韻 讀詩

3.7.1. 자료

㉓ 惠通降龍讀 < 권4(신주6):4b=384 >

山桃溪杏映籬斜 (斜: 假開三平麻邪/쌍ㅈ/샤)
 一經春深兩岸花 (花: 假合二平麻曉/쌍ㅈ/화)
 賴得郎君閑捕獺
 盡教魔外遠京華 (華: 假合二平麻匣/쌍ㅈ/화)

㉔ 懷興遇聖讀 < 권5(감통7):10b~11a=396~7 >

昔賢垂範意彌多 (多: 果開一平歌端/당ㅈ/다)
 胡乃兒孫莫切磋 (磋: 果開一平歌清/창ㅈ/차)
 背底枯魚猶可事
 那堪他日負龍華 (華: 假合二平麻匣/쌍ㅈ/화)

㉕ 月明師兜率歌讀 < 권5(감통7):13a=401 >

風送飛錢資逝妹
 笛搖明月住姬娥 (娥: 果開一平歌疑/양ㅈ/아)
 莫言兜率連天遠
 萬德花迎一曲歌 (歌: 果開一平歌見/강ㅈ/가)

3.7.2. 분석과 논의

假攝은 麻 一韻을 포함하고 있고, 果攝은 歌·戈 二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사이의 用韻 基準은 “麻獨用, 歌與戈通”이다. 이에 따르면 ㉓은 “麻獨用”의 기준에, ㉕은 “歌與戈通”의 기준에 충실한 예가 된다.

그러나 ㉔의 경우는 果攝과 假攝을 넘나드는 歌麻通押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 경우도 중국에서는 볼 수 없는 通押이므로 果·假攝의 전승한자음이 /-a/로 통일되어 있는 사실(줄고 1997:321의 논의 참조)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一然의 시대에도 전승한자음과 마찬가지로 두攝에 속하는 글자들의 한자음의 구조가 동일하였던 관계로 이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歌麻通押이 가능했으리라 보는 것이다.

3.8.宕·江攝韻 讀詩

3.8.1. 자료

㉞皇龍寺丈六讚<권3(담상4):17b=236>

塵方何處匪眞鄉 (鄉:宕開三平陽曉/향平/향)

香火因緣最我邦 (邦:江開二平江幫/방平/방)

不是育王難下樹

月城來訪舊行藏 (藏:宕開一平唐從/짱平/장)

㉟洛山二大聖 觀音 正趣 調信讚(後篇)<권3(담상4):42b=286>

治身藏否先誠意

螺夢蛾眉賊夢藏 (藏:宕開一平唐從/짱平/장)

何似秋來清夜夢

時時合眼到清涼 (涼:宕開三平陽來/량平/량)

㊱仙桃聖母隨喜佛事讚<권5(감동7):7a=389>

來宅西廡幾十霜 (霜:宕開三平陽生/상平/상)

招呼帝子織霓裳 (裳:宕開三平陽禪/쌍平/상)

長生未必無生異

故謁金仙作玉皇 (皇:宕合一平唐匣/황平/황)

㊲金現感虎讚<권5(감동7):17a=409>

山家不耐三兄惡

蘭吐那堪一諾芳 (芳:宕合三平陽敷/팡平/방)

義重數條輕萬死

許身林下落花忙 (忙:宕開一平唐明/망平/망)

㊳惠現求解讚<권5(괴은8):21b=418>

鹿(?塵)尾傳經倦一場 (場:宕合三平陽澄/땅平/당)

去年清誦倚雲藏 (藏:宕開一平唐從/짱平/장)

風前青史名流遠

火後紅蓮舌帶芳 (芳:宕合三平陽敷/팡平/방)

㊴信忠掛冠讚<권5(괴은8):22b=420>

功名未已鬢先霜 (霜:宕開三平陽生/상平/상)?

君寵雖多百歲忙 (忙:宕開一平唐明/망平/망)

隔岸有山頻入夢

逝將香火祝吾皇 (皇：宕介 一平唐匣/幫平/황)

3.8.2. 분석과 논의

宕攝은 陽·唐 二韻을 포함하고, 江攝은 江 一韻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들 사이의 用韻 基準은 “陽與唐通, 江獨用”이다. 위의 讚詩들에서는 “江獨用”을 보이는 예는 없고, ㉞~㉟은 “陽與唐通”의 기준에 충실한 예가 된다.

그러나 ㉞의 경우는 江攝과 宕攝을 넘나드는 江唐通押을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것도 앞의 경우와 같이, 江·宕攝의 전승한자음이 /-ang/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실(졸고 1997:316, 322의 논의 참조)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一然의 시대에도 전승한자음과 마찬가지로 두攝에 속하는 글자들의 한자음의 구조가 동일하였던 관계로 이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江唐通押이 가능했으리라 보는 것이다.

3.9. 梗攝韻 讚詩

3.9.1. 자료

㉚ 原宗興法 狀觸滅身(狀觸)讚 <권3(홍법3):9a=219>

徇義輕生已足驚 (驚：梗開三平庚見/경平/경)

天花白乳更多情 (情：梗開三平清從/정平/정)

我然一劍身亡後

院院鍾聲動帝京 (京：梗開三平庚見/경平/경)

㉛ 金官城婆娑石塔讚 <권3(담상4):15b=232>

載馱緋帆齒施輕 (輕：梗開三平清溪/경平/경)

乞靈遮莫海濤驚 (驚：梗開三平庚見/경平/경)

豈徒到岸扶黃玉

千古南倭遏怒鯨 (鯨：梗開三平庚羣/정平/경)

㉜ 皇龍寺九層塔讚 <권3(담상4):19a=239>

鬼拱神扶壓帝京 (京：梗開三平庚見/경平/경)

輝煌金碧動飛甍 (甍：梗開三平耕明/명平/명)

登臨何啻九韓伏

- 始覺乾坤特地平 (平: 梗開三平庚並/평/평)
 ④南白月二聖 勢盼夫得 怛怛朴朴(北庵)讚<권3(담상4):38a=277>
 滴翠崑前剝啄聲 (聲: 梗開三平淸書/성/성)
 何人日暮扣雲扃 (扃: 梗合四平靑見/경/경)
 南庵且近宜尋去
 莫踏蒼苔汚我庭 (庭: 梗開四平靑定/평/평)
 ④郁面婢念佛西昇讚<권4(감동7):>
 西隣古寺佛燈明 (明: 梗開三平庚明/평/평)
 春罷歸來夜二更 (更: 梗開二平庚見/경/경~경)
 自許一聲成一佛
 掌穿繩子直忘形 (形: 梗開四平靑匣/평/평)

3.9.2. 분석과 논의

梗攝은 庚·耕·淸·靑 四韻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用韻 基準은 “庚與耕淸通, 靑獨用”이다. 위의 讚詩들을 이러한 基準에 따라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다.

- 庚與耕淸通 : ②, ③, ④
- 靑獨用 : 無例
- 以淸儼靑 : ④²⁴⁾

따라서 위의 讚詩들은 用韻의 基準을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④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2句와 4句 사이에 靑通押을 보임으로써 “靑獨用”의 기준을 벗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도 중국 시에서 볼 수 없는 현상이므로 앞의 경우와 같이 庚·靑韻의 전승한자음이 대부분 /-jang/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실(참고 1997:322~3의 논의를 참조)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는 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一然의 시대에도 전승한자음과 마찬가지로 두 韻에 속하는 글자들의 한자음의 구조가 동일하였던 관계로 이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庚靑通押이 가능했으리라 보는 것이다.²⁵⁾

24) 중국 한시에서의 以淸儼靑의 예는 홍우흠편역(1983:50)을 참조할 것.

25) 이와 관련하여 하나 보충할 것은 「更」의 한국한자음이 《東國正韻》에서는 ‘경^平, 去’만 보이고 있음에 비하여 현실 한자음 자료에서는 ‘경, 京’의 두 음이 모두 나타나고 있는데,

3.10. 效·流攝韻 讚詩

3.10.1. 자료

④ 原宗興法 狀鵠滅身(原宗)讚 < 권3(흥법3):9a=219 >

聖智從來萬世謀	(謀：流開三平尤明/ㄹㅁ/모)
區區興議謾秋毫	(毫：效開一平豪匣/ㄹㅁ/호)
法輪解逐金輪轉	
舜日方將佛日高	(高：效開一平豪見/ㄹㅁ/고)

3.10.2. 분석과 논의

效攝은 蕭·宵·肴·豪 四韻을 포함하고 있고, 그 用韻 基準은 “蕭與宵通, 肴獨用, 豪獨用”이다. 반면, 流攝은 尤·侯·幽 三韻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用韻 基準은 “尤與侯幽通”이다. 위의 讚詩에서 首句를 무시한다면 “豪獨用”의 기준에 충실한 예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런데 위에서 보인 것처럼 「謀」의 전승한자음이 豪韻字와 동일하게 /-o/인 점을 감안할 때는²⁶⁾ 위의 讚詩의 압운은 한국한자음을 기준으로 한 以尤儼豪의 儼韻例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중국시에서는 이러한 儼韻例를 발견할 수 없다). 다소 지나친 억측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한다면, 위의 讚詩는 一然의 시대에도 尤韻 明母字의 한자음이 전승한자음과 같이 ‘모’였음을 알려주는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더불어 一然 당시의 한국한자음이 《東國正韻》의 체계보다는 15, 6세기 전승한자음의 체계에 더 가까웠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몹/모’의 중성의 차이에 유의). 다만,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단정적인 언급은 피하고 앞으로의 과제로 남기도록 한다.

一然 당시에 「更」의 한자음이 현실 한자음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리라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왜냐 하면, 4句의 압운자 「形」의 한자음이 ‘형/형’이므로 2句의 끝 구절 ‘夜二更’의 ‘更’도 ‘경’으로 읽히지 않았으면(오늘날에도 이 경우의 음은 ‘경’이다) 한국 한자음의 간섭에 의한 庚靑通押이 불가능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26) 尤韻字 중에서 聲母가 明母인 글자들만 특이하게 ‘모’의 음을 보이고, 나머지 글자들은 /-u~ -ju/의 음을 보인다. 참고(1997:324)의 논의를 참조.

3.11. 深攝

3.11.1. 자료

④緣會述名 文殊帖讚<권5(피은8):20b=416>

倚市難藏久陸沈 (沈：深開三平侵澄/뎡ㅍ/뎡)

囊錐既露括難禁 (禁：深開三平侵見/금ㅍ/금)

自緣庭下青蓮誤

不是雲山固未深 (深：深開三平侵書/심ㅍ/심)

④永才遇賦讚<권5(피은8):24b=24>

策杖歸山意轉深 (深：深開三平侵書/심ㅍ/심)

綺紈珠玉豈治心 (心：深開三平侵邪/심ㅍ/심)

綠林君子休相贈

地獄無根只寸金 (金：深開三平侵見/금ㅍ/금)

⑤大城孝二世父母 神文(王)代讚<권5(효선9):29a=433>

牟梁春後施三畝

香嶺秋來獲萬金 (金：深開三平侵見/금ㅍ/금)

萱室百年貧富貴

槐庭一夢去來今 (今：深開三平侵見/금ㅍ/금)

3.11.2. 분석과 논의

深攝은 侵 一韻을 포함하고 있고, 그 用韻 基準도 “侵獨用”이다. 위의 讚詩들은 모두 이 기준에 충실한 예들이다.

4. 結論과 展望

이상의 논의에서 드러난, 一然의 讚詩들에서의 用韻上의 逸脫例와 그들이 의미하는 바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攝	예시 번호	내용	의의
通	㉔	東鍾通押	一然 당시 한자음=전승한자음(15, 6세기 현실 한자음)
山	㉕	山元通押	一然 당시 「塙」의 속음이 ‘반’이었을 가능성
山	㉖	先庚通押	一然 당시까지 梗·曾攝字=山(先韻)·臻攝字(중성에서)
假·果	㉗	歌麻通押	一然 당시 한자음=전승한자음
宕·江	㉘	江唐通押	一然 당시 한자음=전승한자음
梗	㉙	庚青通押	一然 당시 한자음=전승한자음

위의 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사>에 실려 있는 讚詩의 押韻現象을 통해서 본 一然 당시의 한국 한자음의 체계는 대체로 전승한자음 즉, 15, 6세기 현실 한자음의 그것과 매우 가까운 것으로 드러난다. “東鍾通押, 歌麻通押, 江唐通押, 庚青通押”의 逸脫은 한국한자음에서의 구조적 동일성에 의한 干涉에 말미암은 현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부분적으로는 전승한자음과의 차이도 발견된다. “山元通押”의 逸脫例를 통해서 「塙」의 俗音이 ‘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先庚通押”의 逸脫例를 통해서 一然 당시까지도 梗·曾攝字와 山(先韻)·臻攝字들의 중성이 동일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一然 당시의 한자음은 일부의 예들을 제외하고는 전승한자음의 체계와 동일한 것이었으라는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즐고(1997)에서 고대~전기중세국어의 한국한자음 체계가 상고음적 층위와 중고음적 층위가 복합된 이원적 체계로 파악한 결론과는 약간의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즉, 一然의 시대에는 上古音의 층위를 반영하는 자료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가 一然 한 사람의 讚詩만을 대상으로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詩韻 資料는 韻母에 대한 정보만 제공해 줄 뿐 聲母 즉, 한자음의 초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므로 아직은 고려시대 한자음의 체계에 대하여 일반화된 결론을 말하기에는 이른 듯하다. 앞으로 보다 많은 漢詩들의 押韻 資料뿐만 아니라 고유명사 자료, 차자표기 자료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에야 이에 대한 是非非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된다. 後稿를 기약한다.

참고문헌

- 강신항(1994), <고려시대의 운학과 역학>, 《우리말 연구의 샘터》, 문경출판사.
- 권인한(1995), <조선관역어의 음운론적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인한(1996), <고대국어 한자음 연구의 가능성 모색>, 《울산어문논집》 11, 울산대 국문과.
- 권인환(1997), <한자음의 변화>, 《국어사연구》, 태학사.
- 김완진(1979), 《문학과 언어》, 탑출판사.
- 김완진(1996), <운올론 삼장>, 《문학과 언어의 만남》, 신구문화사.
- 남광우편저(1995), 《고금한자전》, 인하대 출판부.
- 민병수(1996), 《한국한자사》, 태학사.
- 박동규(1995), 《고대국어 음운연구 I》, 전주대 출판부.
- 박만규(1989), <삼국유사 讚의 용운현상으로 보는 고려 한자음운 연구>, 《중국어 문논집》 5, 부산경남중국어문학회.
- 변종현(1994), 《고려조 한시 연구》, 태학사.
- 성호경(1996), <한국어의 특징에 따른 한국시가의 운·울 양상>, 《문학과 언어의 만남》, 신구문화사.
- 송 민(1990), <한자음>,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동아출판사.
- 안병희(1992a), 《국어사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안병희(1992b), 《국어사 자료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유창균(1980), 《한국 고대한자음의 연구 I》, 계명대 출판부.
- 유창균(1983), 《한국 고대한자음의 연구 II》, 계명대 출판부.
- 유창균(1991), 《삼국시대의 한자음》, 민음사.
- 이기문(1972a), 《개정판 국어사개설》, 민중서관(1978, 탑출판사).
- 이기문(1972b), 《국어음운사 연구》, 한국문화연구소(1977, 탑출판사).
- 이돈주(1995), 《한자음운학의 이해》, 탑출판사.
- 이동환교감/이병도감수(1973), 《교감 삼국유사》, 민족문화추진회.
- 이민수윤희(1994), 《삼국유사》, 율유문화사.
- 이병도역주(1984), 《원문검역주 삼국유사》(수정판), 광조출판사.
- 이종묵(1996), <한시 작법의 언어학적 접근 시론>, 《문학과 언어의 만남》, 신구문

화사.

- 인권환(1983), 《고려시대 불교시의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장세경(1990), 《고대차자 복수인명 표기연구》, 국학자료원.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편(1982), 《한국불교대사전》, 보연각.
 홍우흠편역(1983), 《한시운율론》, 영남대학교 출판부(원저: 王力, 《漢語詩律學》
 중 詩에 관한 부분).
 황패강(1982), 《일연작품집》, 형설출판사.
- 董同龢(1968), 《漢語音韻學》, 臺北: 廣文書局(한국어역: 공재석역(1975), 《한어
 음운학》, 범학도서).
 藤堂明保(1957), 《中國語音韻論》, 東京: 江南書院.
 王 力(1958), 《漢語史稿(修訂本) 上冊》, 北京: 科學出版社.
 王 力(1985), 《漢語語音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한국어역: 권택용역
 (1997), 《중국어음운사》, 도서출판 대일).
 李珍華·周長楫編(1993), 《漢字古今音表》, 北京: 中華書局.
 丁聲樹編(1981), 《古今字音對照手冊》, 北京: 中華書局.
 周法高主編(1973), 《漢字古今音彙》, 香港: 中文大學出版社.
 周長楫(1993), <漢語語音發展史說略>, 李珍華·周長楫編(1993) 所收.
 竺家寧(1986), 《古今韻會舉要的語音系統》, 臺北: 臺灣學生書局.
 平山久雄(1967), <中古漢語の音韻>, 《言語(中國文化叢書1)》, 東京: 大修館書
 店.
 河野六郎(1968), 《朝鮮漢字音の研究》, 天理時報社.
- Hashimoto, M.J.(1970), "Internal Evidence for Ancient Chinese Palatal End-
 ings", *Language* 46-2
 Karlgren, K.B.J.(1915~1926), *Études sur la phonologie chinoise*, Leyde,
 Stockholm, and Göteborg(중국어역: 趙元任·李方桂譯(1940/1975), 《中
 國音韻學研究》, 台北: 臺灣商務印書館).